

“대한민국 환경 발전 이끌어 나갈 공학자 되겠다”



(11) 전남도 제1기 도비유학생 선발 박진희 씨
 개인 목표뿐 아니라 공공 미션 받은 기분
 오염물질 분해·친환경 수처리 기술 집중
 환경 문제 관련 인재 육성·투자 많아지길

“사실 박사진학을 결정하는 과정은 선택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사를 지원할지, 어떤 분야를 공부할지, 그리고 정말로 박사과정에 입학할지, 그런 모든 것들은 개인적인 선택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비 유학생으로 선발이 되고 보니 원래 박사를 진학하고자 했던 개인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공공의 미션이 주어진 기분이 듭니다.”

전라남도 제1기 도비유학생 3명 가운데 연장자인 박진희(여·27·영암)씨는 최종 면접에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환경공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그녀가 환경이라는 분야를 선택한 대학 입학부터 8년간 꾸었던 꿈이기도 했다. 석사를 마친 그녀는 SCI급 논문 2편, KCI급 논문 1편, 특허 2개 등의 ‘실적’을 쌓았다. 2년 간 쉴 새 없이 공부하고

연구했다는 의미다.

“중급속 도양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포항공대를 찾아가 방사광가속기를 사용했어요.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찾아와 기다렸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전남도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전남에 설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도 이 때문이었죠.”

그녀는 전남도가 유치 캠페인을 진행할 당시 열심히 응원 댓글을 달았을 정도로 고향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유치가 실패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드시 방사광가속기, 아니면 그 이상의 연구시설이 들어오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유학기간 동안 생물학적 공법을 이용한 오염물질 분해와 친환경 수처리 기술 연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과분화합물입니다. 아웃도어 제품과 종이컵, 프라이팬 등 생활용품에 주로 사용되는데, 잘 분해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한 번 환경에 노출되면 수 백 년간 남아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18일 출국 예정인 박씨는 5년의 유학기간을 예정하고 있다. 전남도로부터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는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서서히 충당해볼 생각이다.

“공부를 마친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환경공학이라는 분야가 크게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전도유망한 전공, 발전가능성 있는 전공이라는 이야기들 들어왔지만 이제는 정말 산학연 분야에서 환경공학이 더욱 활약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면 합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분야의 인재 육성과 투자에는 인색하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좀 더 다양한 세부전공의 환경공학자들이 전공을 살릴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아직 실감은 안 나지만, 고향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어서 기쁩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께서도 좌절하지 않고 좀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주위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년의 이듬을 늘 생각하며 바르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축산업계·농가 ‘집중호우 피해지역’ 위문품 전달



전남 축산업계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위문품을 전달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낙농육우협회 및 양계협회, 해남 한우농가는 최근 수해지역에 우수와 계란, 조사를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수재민과 복구를 위해 나선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조사료 유실과 부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서다.

전남 낙농육우협회장과 양계협회는 피해가 큰 담양·곡성·구례 지역 이재민과 자원봉사자 등을 위해 1400만원 상당의 계란 1500판과 우수 8000개를 전달했다.

해남 민경천시 한우농가는 300만원 상당 조사료 24t을 곡성·구례 한우농가에 공급했다. 이는 한우 1600두에 1일 급여할 수 있는 분량이다. 특히 민경천씨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으로 피해지역 한우농가의 조사료가 물에 잠겼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나서서 됐다고 한다.

전남 낙농육우·양계협회장과 민경천씨는 “이번 집중호우로 전남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 상황이 하루 빨리 복구돼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남지역 축산분야 피해는 축사 침수 187농가와 가축 침수 114만 마리, 가축 폐사 44만 3000마리로 조사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학업·사회 진입 지원

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최근 (사)광주효성청소년문화재단(이사장 김승진)으로부터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학교 밖 청소년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을 통해 1인1색 성취포상포인트제를 통해 학업을 복귀하거나 사회에 진입하는 등 성과에 포인트를 부여, 달성 축하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27명의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직업군탐방·캠프투어도 진행한다. 현재 직업인을 초빙해 직업특강을 듣거나 직

업체험을 해 보고, 대학생멘토들과 함께 광주지역 대학을 탐방하며 대학진학 전략을 수립하고 목표의식을 북돋아 주는 프로그램이다.

또 행복수기 공모전 등을 운영해 학교밖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황수주 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노력에 대한 뜻깊은 보상과 미래 진로에 대한 확고한 목표의식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인사

◆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장명분 ▲경무과장 김선우 ▲정보화장비과장 황석현 ▲보안과장 김범상 ▲생활안전과장 백형석 ▲여성청소년과장 고은경 ▲경비교통과장 류재혁 ▲남부서장 조규향

◇전남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장진영 ▲청문감사담당관 최숙희 ▲경무과장 김영근 ▲정보과장 차복영 ▲보안과장 장익기 ▲112종합상황실장 서태규 ▲여성청소년과장 윤후의 ▲행사과장 송세호 ▲과학수사과장 고영재 ▲경비교통과장 김신조 ▲목포서장 박인배 ▲여수서장 문병훈 ▲순천서장 조영일 ▲광양서장 김중호 ▲고흥서장 김진천 ▲해남서장 문병조 ▲보성서장 박익규 ▲영광서장 임육성 ▲화순서장 임정철 ▲영암서장 조우중 ▲강진서장 박승기 ▲완도서장 김찬수 ▲진도서장 정성록

TV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활속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25 2020 메이저리그 <토론토:볼티모어>	35 엄마가 바람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0 KBS 뉴스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기막힌 유산(재)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꾸러기 탐구생활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팔도밥상 스페셜	00 그놈이 그놈이다(재)	4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여자들의 은밀한 파티 스페셜	00 여름방학특집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생활정보 스페셜 50 퀴즈 위의 아이들(재)	00 12 MBC 뉴스 20 따라라 따라라 똑똑맨 50 뽀뽀맨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목 보합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50 내고향 전파 스페셜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여성경제(재)		00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식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성 위키 2 30 TV 유치원	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20 이 맛에 산다(재)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4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20 공부가 머니?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20 오매 전라도	00 불타는 청춘(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위험한 약속	20 찬란한 내 인생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최강 1고시
8	30 기막힌 유산	30 노래가 좋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나이의 판타지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그놈이 그놈이다	30 공부가 머니?	
10	00 시사토론 '10' 50 더 라이브	40 옥탑방의 문제아들	50 PD수첩	20 여름특집 불타는 청춘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45 십시일반(재)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10 KBS결탁 다큐멘터리 <정약용 3형제, 과연 신을 버렸나?>(재)	0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통합뉴스룸 ET(재)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55 이 맛에 산다(재)	20 나이트 라인 50 네모세모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IDF 2020 페스티벌 초이스 글로벌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15 출동! 슈퍼윙스	-해협	19:00 형사 가제트
07:30 뽀뽀뽀 뽀뽀로	14:20 EIDF 2020 예술하다	19:30 최고대 호기심딱지
07:45 로보가 폴리	-JR의 벽화 프로젝트	18:45 자이언트 팽TV
08:00 동등명 유치원	14:40 레이디버그	20:00 극한직업 스페셜
08:30 코코몽2	15:40 해오와 해오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50 뽀로로와 노래해요	<세계의 불가사의>
09:00 픽시	15:5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제국의 전설, 이탈리아)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6:10 뽀뽀뽀 뽀로로(재)	21:30 한국기행
09:30 페파 피그	16:25 방귀대장 뽀뽀이(재)	<잠시, 쉬어 갈래요 2부 이 맛에 삽니다>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6:40 동등명 유치원(재)	21:50 EIDF 2020 예술하다-회귀의 서곡
10:30 한국기행	17:00 EBS 뉴스	22:15 EIDF 2020 페스티벌 초이스 아시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아동명명 귀여워2	-빛의 아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로빈 후드	24:00 EIDF 2020 페스티벌 초이스 아시아
12:00 EBS 정오뉴스	17:45 히어로 씨클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8일 (음 6월 29일 癸巳) ☎ 010-9790-8237

36년생 겉과 속이 확 찬 상태이니 지금 바로 수확을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48년생 돈이 관건이 되리라. 60년생 치우친다면 설득력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72년생 어렵잡아 판단할 일 아니다. 84년생 머뭇거리지 말 것이며, 자신감을 갖고 확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낫다. 96년생 변동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백 번 낫다. 행운의 숫자 : 09, 77

37년생 생산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형상이다. 49년생 반가운 소식이 있겠다. 61년생 당시의 현장에서 의사 표시가 분별해야만 한다. 73년생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85년생 심기가 불편한 판도가 역력히 보이느니라. 97년생 수심이 깊으므로 건넌야 할 때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21, 95

38년생 불행이 올 수 있으나 머지않아 해소되리라. 50년생 어려워 보여도 막상 실행한다면 가볍게 해결되리라. 62년생 무방하다. 74년생 부실한 국면에 대해서 주의한다면 외위의 손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86년생 다시 한 번 점검 해봐야 한다. 98년생 모든 일이 순행하면서 행운을 가져다주리라. 행운의 숫자 : 91, 65

39년생 길성이 왕성해지고 있으니 필히 이루어라. 51년생 제3자의 관점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라. 63년생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75년생 과신하지 않는다 면 차질은 없다. 87년생 전체적인 국면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고찰하자. 99년생 수월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8, 93

40년생 무형의 가치를 파악하자. 52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아야 한다. 64년생 불안전했던 원인 요소가 해소 될 수도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76년생 내면적 실정에 충실함이 이 익이다. 88년생 생소한 것에는 조심해야 하느니라. 00년생 상태를 타하기 이전에 자신부터 뒤돌아보는 것이 순서이다. 행운의 숫자 : 33, 54

41년생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찾아내야겠다. 53년생 정황 파악에 빈틈이 없어야만 할 것이다. 65년생 순리대로 풀어나간다면 결과가 좋으리라. 77년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실마리가 조성 되겠다. 89년생 오해불망으로 학습고대 하여 왔던 바의 성취를 목전에 두고 있다. 01년생 양보가 가장 빠르고 유익한 방법이라. 행운의 숫자 : 03, 61

42년생 회비가 쌍곡선을 그리며 질주하는 위상이다. 54년생 지켜보고 싶다면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66년생 먹구름이 사라지면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78년생 기교한 기운이 휘몰아치니 이번이 예상된다. 90년생 기준에 있어 왔던 것이나 다루기가 용이 하겠다. 02년생 그 무엇보다도 실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행운의 숫자 : 43, 82

31년생 액운이 보이니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43년생 천운조로써 대결하는 운세이다. 55년생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니라. 67년생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이다. 79년생 기쁨 속에 함정이 숨어 있을 것이니 예의 주시해야만 안전하다. 91년생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라. 행운의 숫자 : 07, 55

32년생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44년생 자제히 알지 못한다면 나서지 말라. 56년생 현재 드러나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불안전하다. 68년생 마음먹은 바 임의적으로 행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80년생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92년생 분수에 맞지 않으니 욕심 부려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24, 72

33년생 진행 되고 있다면 중단시킬 필요가 없다. 45년생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나하는 의문점이 남는다. 57년생 과거에 했던 그대로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69년생 불필요한 걱정은 심신을 쇠잔케 할 뿐이다. 81년생 연결 고리를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어야겠다. 93년생 눈부신 발전이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7, 62

34년생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국면이다. 46년생 자기와의 약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58년생 문 제점을 인식하고도 범연 한다면 냉혹한 현실에 처하게 되리라. 70년생 지극한 정성으로써 이루지 못할 일은 없느니라. 82년생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 번 뒤돌아다보라. 94년생 주변의 문제와 관련 되어질 수다. 행운의 숫자 : 08, 70

35년생 과분하게 언행 하는 것은 오는 복을 바로 차내는 것과 같다. 47년생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살펴라. 59년생 도모하라. 71년생 기세유역의 이치에 의해서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로 바뀌리라. 83년생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95년생 예전에 접해 보지 못했던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겠다. 행운의 숫자 : 13, 71